

해외투자 생산성 효과 분석을 위한 현장 조사

-하병기 선임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I. 출장 개요

- 출장자: 하병기 선임연구위원
- 출장 기간: 3월 16일 - 3월 20일

일시	일정	위치 및 기타
16일 19:00	인천 출발 북경 도착	
17일 오전	북경 현대차	북경시 순의구
17일 오후	현대 모비스	북경시 조양구
18일 오전	성우하이텍	북경시 평곡구
18일 오후	대림기업	북경시 평곡구
19일 오전	KOTRA 북경무역관	북경시 조양구
19일 오후	두산 인프라코어	북경시 조양구
20일 11:45	북경 출발 인천도착	

- 출장 목적: 현지법인 방문을 통하여 현지 법인의 활동이 모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와 기타 경영활동을 조사

II. 조사 내용 및 평가

- 주요 면담내용

- 자동차 현지법인의 경우 모기업과 수직적인 분업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음.
 - 중국 현지조달 비중은 업체마다 다르나 현지 경쟁여건의 심화로 점차 상향 조달 계획임.
 - 현지 자동차 판매 가격 인하 경쟁에 대응하여 가격 경쟁력 유지하기 위해 현지 조달 불가피
- 주요 핵심부품은 여전히 현지 한국계 부품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상

황

- 대부분의 부품 조달업체는 한국업체이거나 외자 기업이며, 향후에는 국적 구분없이 조달선을 결정할 계획임.
- 현지법인의 경우 3대 보험 등에 미리 대비하여 온 바 아직은 생산 비용이 낮은 수준이나 생산비용의 상승에 대응하여 자동화를 계획 중임.
- 중국내에서 자동차는 안전과 관련된 설비를 제거하는 등 비용 저하에 중점을 두고 생산되고 있음.
 - 연료통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이 예로, 한국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힘들 것임.
- 현지법인장이 engineer 중심이어서 마케팅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가 다반사임.
- 기술이전료의 경우 처음 계약시 포함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차후 이를 설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움.
 - 객관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평가

- 방문한 기업은 한국 본사와 제품 생산에서 차이점이 거의 없어 현지법인의 경영이 본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할 수 없음.
 - 방문 기업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중국과 한국 경제의 수준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지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현지법인이 점차 설비투자 확대를 통하여 현지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선진국 현지법인의 경우 마아케팅 기술 등의 지식 전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 다만, 현지법인이 모기업으로부터 부품 및 중간재 수입을 확대함에 따라 모기업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
 - 또한, 현지법인의 설비를 주로 모기업을 통해 수입함으로써 모기업 영업활동의 고부가가치화도 기대할 수 있음.
 - 현지법인이 주로 모기업을 통하여 수입하는 기계 및 설비의 경우 모기업이 자체 생산하거나 외주를 통하여 생산함.